



미국, 소비지표 개선 추세 지속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전미소매연맹(NRF)은 11월 22일에서 25일까지 4일간 이어진 추수감사절 연휴기간 동안 소매판매액이 전년동기대비 13% 증가한 59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
 - 연휴기간 동안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쇼핑을 한 인원은 1억 3,900 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% 증가하였으며, 1인당 쇼핑액도 423달러로 25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전미소매연맹의 Matthew Shay는 온라인 쇼핑 증가가 소매판매 증가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하고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.
 - IBM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월요일의 온라인 세일을 의미하는 사이버 먼데이 기간 동안에도 소매 판매가 30.3%나 증가하였으며,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제품 구매가 전년대비 70% 증가함.

- 한편, 11월 28일 컨퍼런스보드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가 73.7로 전월대비 0.6포인트 상승하면서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
 - 11월 소비자신뢰지수는 2008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, 2012년 8월 60.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.
 - 항목별로는 현재 경기상황 지수가 전월대비 0.1 포인트 소폭 하락한 56.6을 기록한 반면 향후 6개월 간의 경기상황에 대한 기대 지수는 84.0에서 85.1로 상승하면서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.
 - 한편, 지난 21일 발표된 톰슨 로이터/미시건대의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대비 0.1 포인트 상승한 82.7을 기록하는 등 소비관련 지수의 개선 추세가 지속됨.

(Reuters 등, 11/27)